

광주시, 지역 맞춤형 일자리에 59억4000만원 투입

지역주도 일자리 지원 등 2개분야 10개 사업 추진 내일 통합설명회 개최...사업 안내·상담부스 운영

광주시가 올해 지역산업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 사업에 59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지역 주력 산업인 스마트가전, 뿌리 산업 기업 등 227개사의 자생력을 높이고

고용위기 산업을 지원해 신규 고용 창출 378명, 고용 유지 1300명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과 '고용이음 위기극복 프로젝트' 등 2개 분야로 구성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광주지역 주력 산업인 융·복합 가전(스마트가전, 뿌리산업 포함) 업종의 자생력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한다. 기업 역량을 진단하고 컨설팅을 통해 판로 개척을 돕거나, 기술 이전과 제품 고도화를 지원하는 등에 39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이음 위기극복 프로젝트는 광산구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용 위기가 지역경제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한다. 광산구의 가전·고무제품 제조업과 전후방 연관 산업 근로자를 중점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는 고용유지 조치 중인 대상자의 생활 안정 등에 2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세부 사업별 신청 기간에 따라 예산 소진 때까지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세부 지원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www.gwangju.go.kr), 광주상공회의소(www.gjcci.or.kr), 광주테크노파크(www.gitp.or.kr), 광주디자인진흥원(www.gdc.or.kr), 광주경영자총협회(www.gjef.or.kr)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광주시는 오는 8일 오후 2시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공동 주최하고 사업수행기관들이

공동 주관한다. 설명회에서는 사업별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상담 부스도 운영한다. 임병두 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산업의 고용환경 개선과 일자리 질 향상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민물장어 완전양식...인공종자 생산 연구 '속도'

전남해수원, 수입 의존 구조 탈피 겨냥...기술 고도화 호르몬 국산화·먹이원 등 개발...실범장어 생산 성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민물장어 완전양식을 위한 인공종자 생산 연구를 확대하며 수입 의존 구조 개선에 나섰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미래수산연구소는 내수면 대표 양식 품종인 민물장어의 안정적 종자 확보를 목표로 인공종자 생산 기술 고도화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 국내 두 번째로 민물장어 인공종자 66마리 생산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연구 범위를 확대해 기술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현재 민물장어 양식은 종자의 70% 이

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나머지는 자연산 종자 포획에 의존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생산량이 자연산 확보 여건에 좌우되는 한계가 지속돼 왔다. 연구소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인공종자 생산 기술 확보에 나섰다. 초기에는 생리·생태 특성 규명과 먹이원 확보 등의 난제로 성과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업을 통해 부화 자어의 20일 생간 한계를 극복하고 실범장어 생산에 성공했다.

보 과정에서는 기존 일본산 연어 뇌하수체 호르몬 의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산 무지개송어 뇌하수체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성숙유도 호르몬 국산화 기반을 마련하고 특허 출원을 추진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연구는 2016년 고용유지된 ㈜비알파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해당 기업은 무항생제 해수양식 시스템을 기반으로 원재료를 확보하고, 고순도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나트륨(PDRN)을 생산하는 바이오기업이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연구시설 확충과 인력 보강을 병행해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완전양식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현구 기자 gnnews1@

기본소득당, '햇빛바람특별시' 전남광주 1호 공약 발표

"재생에너지로 지역 도약"

기본소득당이 전남광주 대도약을 위한 1호 공약으로 '전남광주 햇빛바람 특별시'를 내놨다. 옹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박은영·문지영 전남광주특별시의원 후보와 함께 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비전을 제시했다. 해당 비전은 '전남광주 햇빛바람 특별시'로, 이번 선거 1호 공약이다. 정책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와 공공투자, 전력망 현대화,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원전 축소 등으로 구성됐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와 공공투자는 옹 대표가 대표 발의한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법'과 '해상풍력 이익 공유법'을 통해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여기에 통합 지원금 20조원 중 4조원을 직접 공공투자 해 전남광주특별시가 발전량의 최소 10%



옹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박은영·문지영 전남광주특별시의원 후보와 함께 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비전을 제시했다.

를 연구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송전망 지중화 및 ESS·VPP 도입 등 전력망 현대화,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도 추진, 첨단산업 유치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햇빛발전자립전소 축소·폐쇄 공약도 공시화했다. 한빛발전소의 연간 발전량(4500만MW)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이익공유제 적용으로 연간 수조원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어서다. 기존 원전 계통망을 재생에너지 계통망으로 전환 활용할 수 있어 인프라 효율도 높다는 설명이다. 옹 대표는 "호남의 미래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주민 복리와 얼마나 잘 연결 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며 "전남광주특별시가 햇빛바람 시민주식회사가 되겠다는 각오로 행정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민주당, 박상용 검사 녹취 증거 제출 기자회견 6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서민석 변호사가 쌍방을 대립송근 사건 관련 박상용 검사 녹취 증거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현, 광주전남통합시장 출마 공식화

"전국정당 가능성 시험대"...국민의힘 향해 변화 촉구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들 포기할 때 나는 광주로 간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글에서 보수 정당의 호남 전략을 강하게 비판하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정당은 40여년 동안 호남 포기를 전략으로 삼아왔다"며 "그 결과가 수도권을 넘어 충청, 부울경,

대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남에서의 보수 기반 붕괴를 방치한 것이 결국 전국적 약화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이번 출마를 '정치적 도제'의 길을 올리고자 하는 '정치적 도제'가 아닌 '존재 증명'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겠다"며 "주요 정당은 40여년 동안 호남 포기를 전략으로 삼아왔다"고 강조했다. 또 "누군가는 호남에서 보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부딪치고 다시 일어 서며 자유와 선택의 가치, 정치의 책임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출마를 두고 이 전 위원장은 "호남에서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절박한 실험"이자 "국민의힘이 전국정당으로 거듭날 의지를 시험하는 무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다들 계산할 때 몸으로 부딪쳐 보겠다"며 광주·전남에서의 정면 돌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혁신당 "전남광주특별시 청년 정책참여 확대"

조국혁신당 청년위원회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과정에서의 청년 목소리 반영과 청년참여예산 및 정책참여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혁신당 광주시당 청년위원회는 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의 성공은 청년에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옹태오 청년위원장, 서수미 수석부위원장, 김보람 광주 부구청장, 조성오 동구 가선거구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통합 재원은 청년의 참여권과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우선 투입돼야 한다"며 "청년이 지

역을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와 정주여건 부족 뿐만 아니라 청년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소외감과 상실감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 재원 일괄 비유를 청년참여예산으로 별도 계정화해 청년이 직접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요 공공사업과 정책 추진 과정에 청년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청년 정책 공동 설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

6·3 지방선거 브리핑

이광일 예비후보 지지 각계각층서 잇따라

"현장 경험·재정 운영 능력 갖춘 후보"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예비경선을 앞두고 이광일 예비후보(사진)를 향한 각계각층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며 막판 세 걸질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여수지회 안병석 회장, 사랑나우리 여수다문화가족 조희선 회장, 전남장애인연맹 김희숙 회장, 전남장애인태권도연맹 정서인 회장, 전남장애인배드민턴 연맹 최희욱 회장 등은 최근 이광일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이광일 후보는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직접 뛰며 문제를 해결해 온 인물"이라며 "여수의 변화를 이끌 실행력과 경험을 갖춘 후보"라고 평가했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특히 "전남도의회 제1부 의장으로서 의정 경력을 쌓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장애인지방의원협의회 상임대표를 맡아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온 점이 강점"이라며 "특정 분야를 넘어 지역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준비된 후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약 12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심의·의결한 경험을 통해 재정 운영과 정책 집행 능력까지 검증된 인물"이라며 "여수의 재정과 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72홀 규모 매머드급 파크골프장 건립하겠다"

이재대 나주시장 예비후보, 경제 활성화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대 나주시장 경선후보(사진)가 나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72홀 규모의 매머드급 파크골프장 건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번 구상이 단순한 체육시설 확충이 아니라, 전국적인 파크골프 열풍을 활용해 외부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체류형 스포츠 관광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대 후보는 72홀 규모의 대형 시설을 통해 전국 단위 파크골프 대회를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나주를 대한민국 파크골프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회 참가 선수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숙박·외식·관광 소비로 이어지



면서 '스쳐 가는 도시'가 아닌 '머무는 나주'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라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파크골프장은 어르신 건강 증진과 여가 복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생활체육 인프라로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책은 타이밍과 실행력이 중요하다"며 "파크골프장 조성과 주변 상권 연계 전략을 함께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조현민 기자 pose007@gwangnam.co.kr

강필구 영광군의원, 10선 불출마

전국 최다선(9선) 기초의원인 영광군의회 강필구(75·더불어민주당·사진)의원이 이번 6·3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강 의원은 6일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10선 군의원에 도전하고자 했으나 깊은 고민 끝에 오늘(민주당 경선 후보들) 사퇴하고 이번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한걸음 물러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지난날을 뒤로 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과 군민 여러분과 함께 웃고 어울리며 살아가려 한다"고 했다. 이현구 기자 gnnews1@

